# 고려 시대 조성 오층석탑 2기 국보된다

## 보원사지 ·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보 지정 예고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고려 광종代 조성된 '고려 석탑'**
**'석탑 조성시기 편년 기준' 평가**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1011년 건립…조성 시기 명확해**
**독창적 조각…예술적 완성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사진 왼쪽)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사진 오른쪽).

고려 시대 양식을 담고 있는 오층석탑 2기가 국보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석탑 자체의 건립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탄문(坦文, 900~974)이 보원사에 있을 때 고려 광종을 위하여 봄에 불탑과 불상을 조성했다는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의 비문과 함께 석탑의 조영기법, 양식을 고려했을 때 고려 광종 때인 10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청된다.

기단부는 위아래로 2층의 가구식 기단을 구성했고, 부조 조각기법으로 아래층 기단 면에는 형상이 다른 사자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위층 기단 면에는 팔부중상(八部衆像)을 유려하게 조각해 통일신라의 조각양식과 수법을 계승하면서도 고려 시대 석탑의 특징도 잘 표현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비교적 명확한 조성시기와 함께 고려왕실과 불교와의 관계를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편년(編年) 기준이 되는 고려 시대 석탑"이라며 "통일신라 말기 조영기법과 양식을 계승하면서 고려 시대 새로운 기법들이 적용된 석탑으로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은 1011년(고려 현종 2년)에 건립됐다. 석탑에 새겨진 190자의 명문(銘文)으로 구체적인 건립시기와 과정, 당시 사회상 등을 알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기단부는 2층의 가구식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층 기단에는 각 면마다 3개의 안상(眼象)을 배치하고 안상 내에 12지신상을 조각했다. 위층 기단에는 각 면마다 2구씩 팔부중상을 조각했다. 이는 1층 탑신의 금강역사상의 배치와 함께 다른 석탑에서는 유사성을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방식이며, 복식이나 지물 또한 특이해 예술적 완성도가 높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을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보로 지정할 예정이다.

# 선운사 본말사 문화유산 가치 조명한다

**불교중앙박물관 · 선운사 공동**
**11월 18일 국립민속박물관서**
**내년 상반기 특별전시 연계**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와 말사들의 불교문화유산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스님)과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11월 18일 오전 10시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선운사 본·말사 불교문화유산'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시 '도솔산 선운사'(가제)와 연계한 사전 행사로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인 고창 선운사, 부안 내소사, 부안 개암사 등이 봉안·소장한 조각, 회화, 공예, 서지, 섬유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유산들의 가치를 전문 학자들이 조명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인 '선운사의 불교문화유산'에서는 불교조각사 연구 권위자인 정은우 부산박물관장(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시대 양식을 담은 도솔산 선운사의 삼지장'을 시작으로 △선운사 불조도와 고승진영으로 본 문중 변화와 그 의미(이용윤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선운사 〈석씨원류〉 간행과 목판(이상백 부산대 교수) △선운사 영산전 조선 후기 16나한상 및 권속상의 복장물(유근자 국립순천대 학술연구교수)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2부 주제인 '선운사 말사의 불교문화유산'은 금속공예사 연구의 권위자인 최응천 동국대 석좌교수의 기조강연 '국보 내소사 동종과 장인 한중서'를 시작으로 △내소사 묘법연화경 사경보 및 포갑의 섬유사적 가치 재조명(심연옥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이후에는 김정희 원광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미경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리송재 불교문화유산연구소 팀장, 심주완 불교중앙박물관 종무관, 이승희 국립순천대 학술연구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세미나는 사전 신청 및 현장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누리집(museum.buddhism.or.kr)에 게시된 접수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 "청화 스님 '염불선', 무형유산으로 보존을"

**청화사상연구회 제13차 세미나**
**혜운사 활용안 조명 연구 발표**


전남 무안에 건립된 혜운사와 청화 스님의 수행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 전경.

근현대 한국불교 선지식 무주당 청화(1923~2003) 대종사가 주창한 염불선을 지금 시대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는 11월 2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염불선의 실천수행과 교화'를 주제로 제1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행사는 벽산 무주회(문장 일묵 용타 스님)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염불선 교화를 위한 청화기념관 활용 방안'을 통해 한국불교의 중요 무형유산인 염불선의 가치를 조명하고, 청화기념관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청화 스님이 주창한 '염불선'이 현대 한국불교 수행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무형유산'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계종 총무원이 2013년 제정한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범주를 근거로 "불교의 수행과 관련된 전통지식 및 관습의 영역에 '염불선'이 해당된다"고 봤다.

또한 '염불선'은 한국불교의 사상과 수행이 집약된 구성원들의 '집단기억'임을 강조한 이 교수는 이를 담아내고 종국에는 확장시킬 터전으로 전남 무안 혜운사와 경내에 건립된 청화기념관을 꼽고 "집단기억을 재맥락화해 특별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염불선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염불선 문화콘텐츠 개발의 방향으로 △염불선의 역사성, 종교적·문화적 가치 등 복합적 가치 발굴 △염불선 원천자료의 디지털화와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을 위한 단계별 목표 수립 등을 제시했으며, 혜운사와 청화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4단계 활용 종합계획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혜운사 활용 종합계획은 혜운사가 지니는 염불선 근본도량으로서 위상에 맞는 토대를 구축하고 문화유산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다양한 제도·행정·사회적 지원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만일염불결사'와 '염불선 순례길(가칭)'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만일염불결사'는 청화 스님의 유업을 계승하고 염불선의 확산을 위한 공동 신앙운동"이라며 "만일염불결사는 염불선의 수행과 확산을 이끌어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 원학 스님, 차 사랑방 '다연산방' 개원

**11월 8일 개원…공부 모임·템플스테이 운영**

원학 스님(삼화사 회주)이 경산에 다연산방(茶緣山防)을 열고 공부 모임과 템플스테이 등을 운영하며 차 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11월 8일 개원한 다연산방은 차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차 고전 공부 모임과 차를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 등을 운영한다. 2주에 한 번 모여 함께 고전을 공부하고 차를 즐기는 '청묵예원' 회원도 모집한다.

원학 스님은 "삼화사에서 차 공부 모임을 운영해 왔지만, 차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다"며 "팔공산 자락에서 자연을 느끼며 차를 즐기고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초의 스님의 〈동다송〉과 한재 이목의 〈다부〉를 번역·해설한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와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를 출간한 바 있다. 차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22회 초의문화제 초의상을 수상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daeonsanbang.kr) 참조.

여수령 기자

Seoul International Meditation Expo
The 6th Seoul International Meditation Expo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2025 명상, 하나 되는 길
2025 Meditation, A Journey Into Wholeness
dongguk UNIVERSITY
명상 체험
세계 명상 체험
일시
11월 22일 토요일
11월 23일 일요일
10:00-18:00
장소
3호선 학여울역 SETEC 2전시실
오프닝 공연
11월 22일 토요일 14:00
출연 | 뉴진스님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